

## 토 론 요 지 1

최 용 환(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21세기는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세방화의 시대이다. 이러한 경쟁패러다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활용할 자치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호 정책연구실장께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들이 지방의 발전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제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 지방정부체제가 기존 지방분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행정구조, 자치권, 지방재정제도는 중앙집권체제에 적합한 것으로 민주성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지방행정 구조와 지방분권이란 분권화된 지방정부의 계층 구조와 정부간 관계를 의미한다. 지방정부들이 민주화를 심화시키고 그 효과가 중앙으로 확산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점을 찾는 것은 바로 시대를 앞서 열어가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 첫째,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경쟁이다. 지방정부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 둘째, 지방자치의 가치를 고려해 볼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의 가치는 지방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주의 정치 또한 지방자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증폭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지역 정치인, 전문

가, 언론인, 공무원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분권에 대한 리더십의 형성이 중요하며, 또한 지역주도의 지방분권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예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권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